

「美國長老敎의 韓國宣敎歷史」에 나타난 韓景職 牧師*

한 중 식**

목 차

- I. 머리말
- II. 몸말
 - A. 배경
 - B. 선교사들의 사역
 - C. 연합사업과 협력
 - D. 특별한 형태의 사역
- III. 맺음말

I. 머리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막 6:34; 비교 마 13:57; 눅 4:24; 요 4:44).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한경직목사에게도 적용된다.

조선일보사와 한국갤럽이 전국 1,513명을 면접 조사하여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대한민국 50년을 만든 50대 인물」 선정 여론조사 분야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정치·군·법조계: 박정희, 김구, 김대중, 육영수, 이승만, 전두환, 신익희, 조병옥, 이범석, 이

* 이 논문은 숭실대학교 한경직센터가 주관한 제2회 한경직목사 기념강좌(1998년 10월 10일)에서 발표한 것임.

**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태영, 백선엽, 김종필, 장태완, 윤보선, 김재규

경제계: 정주영, 김우중, 이병철, 이견희, 박태준, 유일환, 구자경, 이명박, 신격호, 구인회
종교·언론·체육·노동계: 김수환, 박세리, 황영조, 성철, 김대중, 박찬호, 차범근, 전태일,
문익환, 김운용

학술·문화·예술계: 정명훈, 이어령, 안익태, 백남준, 이미자, 우장춘, 김옥길, 조용필, 최불암,
이찬진, 조수미, 최현배, 앙드레 김, 김덕수, 서정주.¹⁾

종교계에선 김수환(추기경), 성철(前조계종 종정), 문익환(목사, 민통련 의장, 89년 밀입북) 순
으로 가톨릭, 불교, 개신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직 목사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반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 심사위원회는 만장
일치로 한국의 환경직목사가 템플턴상 수상자로 확정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²⁾

「미국 장로교의 한국 선교 역사」도 환경직목사를 한국 교회의 걸출한 지도자 중 첫 손가락
으로 꼽았다.³⁾

우리는 「미국 장로교의 한국 선교 역사」에 나타난 환경직목사의 사역을 찾아 보고, 이를
국내(영락교회)의 사료로 확인하려고 한다.⁴⁾

1) 조선일보 1998년 7월 15일자.

2) 1992 Templeton Prize for Progress in Religion. Dr. Kyung Chik Han. "We are the public affairs office for the Templeton Prize for Progress in Religion. We have prepared these materials for our press kit to be distributed to the press, throughout the world, at the announcement of you winning the Templeton Prize on March 11 in New York." Donald Lehr.

3)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ume II 1935 - 1959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4), p.216. 아래 참조.

4) 이 목적에 따라 사료 문서를 가능한 한 그대로 전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은 표제는 원문의 것을 따랐다. 목사와 박사의 호칭도 원문을 따랐다.

II. 몸 말

A. 배경

1947년 7월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로부터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대표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단장, 해외 선교부 부회장 Peter K. Emmons 목사(박사); 총무, 일본 선교부의 Henry G. Bovenkerk 목사; 선교부 인사국의 Herrick B. Young 박사; 중국 기독교대학 연합본부 협동총무 William P. Fenn 박사; 전 중국 선교사였던 간호사 Miss Ruth C. Williams. 대표단은 7월 한 달을 한국에서 보냈다. 이외에 특별히 선교사역에 간여 하였던, 전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11명이 미국 정부의 고용된 신분으로 자문에 이용될 수 있었다.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위원회에 의하여 Harry A. Rhodes 박사의 지도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대표단은 남한의 4개의 주둔지의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선교부와 협력하는 모든 기관들을 점검하였다. 이 때에, 한국에 상주하는 감리교 감리원 대표부의 선교사가 세명이었다. 장로교 선교부 대표단과 감리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홀에 걸쳐서 모든 연합사업에 관하여 연합회의를 여는 기회를 가졌다. 북한 방문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소련 점령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Peter K. Emmons 박사는 북한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방송을 하였고, 이것을 한경직목사가 통역하였다.⁵⁾

B. 선교사들의 사역

1. 선천(宣川)

영락교회 목사, 한경직박사는 전에 압록강 강변의 신의주에서 큰 장로교회들 중 한 곳에서 목회를 하였었다.⁶⁾

2. 평양

1950년 10월 UN군이 평양을 점령한지 이틀 만에 선교사들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Samuel A. Moffett 선교사의 아들 미 해군 중령 Howard Moffett 군의관을 필두로, 10월 25일엔 Edward Adams,

5) Rhodes and Campbell, op.cit., p.26.

6) Ibid., p. 88. Cf. 영락교회 35년사 편찬위원회, 永樂敎會 三十五年史(서울: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983), pp. 33 - 37; 한경직목사 기념사업 출판위원회, 한경직목사 성역 50년 (서울: 영락교회, 1986), pp. 28 - 31.

Harry Hill, Arch Campbell, Francis Kinsler 선교사와 다섯 명의 한국 목사들: 윤하영, 한경직, 이인식, 김양선, 유호준 목사가 트럭과 지프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들 뒤엔 [영락교회 협동목사] Harold Voelkel 목사가 미군의 민간인 군목 자격으로 지프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였다.⁸⁾ 이 때의 상황을 「영락교회 35년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 경직목사는 '대한기독교구국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다. 선무(宣撫)의 임무도 있으려니와 특히 지하의 기독교인들의 생사가 궁금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교회 재건이 중차대(重且大)한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서문밖 교회에서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불가승수(不可勝數)의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지하에 숨어 살던 교인들, 이발도 못하고 면도도 못하고 세수조차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왔다. 참으로 눈물겨운 장면이었고 감격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한 경직목사는 증언한다.

평양이 수복되자 유엔군 장성들이 평양에 왔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와 큰 행렬을 이루는 것을 보고 “저 군중이 우리들을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들이나?”고 물었다는 것이다. “아니오! 모두가 기독교 신자들인데 평양이 수복되어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된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가는 군중이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들의 안색에 놀라는 빛이 보였다는 전언이 있다.

한 경직목사 일행은 괴뢰 괴수 김 일성이 살던 집, 김 일성 대학 도서관에도 들어가 보았다. 황급히 후퇴한 흔적이 보였다. 과거 선교사들이 살던 집은 모두 괴뢰 집단의 고관들이 살고 있었다. 동행한 선교사들은 매우 관심있게 자기들이 전에 살던 집을 돌아 보았다. 저들이 쓰던 병풍 한 개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아담스 선교사는 귀한 기념품인 양 가지고 왔다. 현재 숭전대학교 박물관에 보존 중이다.⁹⁾

1950년 10월 29일, 주일 오후 2시에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서문밖 장로교회(West Gate Presbyterian Church)에서 대중집회로 모였다. 큰 본전은 한국 사람들만이 좁혀 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짝 채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지나치는 모습이라도 보기를 원하며 옥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진 목사가 이 집회의 사회를 보았다. 한경직목사는 이사야서 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음이라”를 본문으로 설교하였다.¹⁰⁾ 이날 부른 찬송가들

7) 영락교회 35년사, pp. 127 - 8 와 한경직목사 성역 50년, pp. 54 - 55.

8) Rhodes and Campbell, op. cit., p.95.

9) 영락교회 35년사, pp. 125 - 6; 한경직목사 성역 50년, pp. 53 - 4.

10) 이 때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한경직목사가 똑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1959년 9월 20일 영락교회에서 간증주일에 한 설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韓景職, 韓景職牧師 說教全集3 (서울:大韓基督教書會, 1971), pp. 268 - 77.

중의 하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였다. 광고 시간에 [영락교회 협동목사인] Harold Voelkel 목사가 판매용으로 신약과 쪽복음을 지프차 하나 가득 실어 왔다는 광고가 나가자 운집했던 교인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다. 저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지는 성경을 살 수 있는 기회였다. 여러 해 동안 동양 곳곳을 전전했던 미8군의 참모장 Collier 대령은 그 어느 곳에서도 주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한국 사람들의 기쁨은 죽임을 당하거나 실종된 스물 두명의 목사와 100여명에 이르는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한 슬픔으로 뒤범벅이 되었다.¹¹⁾

3. 서울

교인의 약 2/3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들로 이루어진 5,000명 교인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락장로교회가 세워졌다. 교인들이 겨울에는 옛 천리교 건물에서,¹²⁾ 여름에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 교회의 목사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한경직목사이다.¹³⁾

당시의 천막교회 설치를 「영락교회 35년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947년 6월에 이르러 교인수는 이미 2천명이 넘었다. 당시의 집회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다. 장소는 협소하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이만저만 어려움이 아니었다. 협의 끝에 임시로 대형 천막을 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다.

구내 공원용지에 넓은 공간이 있었다. 바로 현재 본당이 서있는 장소였다. 2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천막을 세웠다. 생전에 생각지도 못하던 천막 예배당을 세운 셈이다. 혹서의 태양 밑의 천막 안은 찌는 듯 더웠다. 예배를 보고 나면 땀으로 목욕을 한 것 같았다. 그리고 바람과 더불어 비가 들이칠 때에는 그 나뭇대로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정열은 식지 않았다. 기도와 간구의 애소는 눈물을 머금게 하였다. 회막 안에서의 한경직목사의 설교는 언제나 위로의 설교인 동시에 격려의 말씀이었다. 구령의 설교인 동시에 애국의 권고였다.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알리고, 신자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생활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설교'였다.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 피난성도들이지만 생명이 보존되고 믿음의 자유를 찾은 기쁨이 충만하였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피난의 살림살이건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은 식지 않았다.¹⁴⁾

영락교회는 1950년, 공산군이 남침하기 바로 몇일 전에 2,500석을 갖춘 아름다운 고딕식 석조

11) Rhodes and Campbell, op. cit., pp. 100 - 101.

12) 영락교회 35년사, p. 46.

13)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115.

14) 영락교회 35년사, p. 83.

건물로 완성되었다. 누구나 서울에서의 4번의 전투에서 이 교회 건물이 파괴되지 않았을까 염려하였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서울로 돌아와 온통 폐허 속에 흠집 하나 없이 우뚝 서 있는 교회 건물을 보았을 때 교인들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라. 이 교회 건물에 낮에는 중학교 과정, 저녁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하기에 충분한 교실들을 갖춘 4층짜리 교육관이 교회건물에 이어 지어졌다.¹⁵⁾ 매 주일 아침 예배는 3부로 드려지는데 매번 교회 건물은 가득히 채워졌다. 이것은 7,500명의 출석교인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될 것이다. 수많은 유명한 방문객들이 이 교회에서 설교하였는데, 예컨대, 미국의 전 국무장관 고(故) John Foster Dulles와 Billy Graham 등이었다.¹⁶⁾ 이들의 통역은 물론 한경직 목사가 도맡아 하였다.

한국 전쟁 중 은 교인의 1/3은 대구로, 2/3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이들은 피난지에서도 대구 영락교회를 부산 영락교회를 세웠고,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서울로 환도한 후에도 이 교회들은 계속 성장하였다.¹⁷⁾

「한경직목사 성역 50년」은 이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울을 떠난 영락교회 교인들은 대개 대구, 부산,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임재를 깨닫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드릴 것을 잊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대구영락교회를, 부산에서는 부산영락교회를, 제주도에서는 제주영락교회를 세우고 교회당을 신축하고 당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소속지역 노회에 가입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한 것이었다.

사실 한목사는 「영락」이란 두 글자를 기념으로 세운 지방교회의 이름에 붙이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영락」이라는 글자를 빼고 지방교회 이름답게 부르도록 권유했으나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노라고 하신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지금껏 별반 큰 부작용이 없음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노라고 부인하신다. 대구영락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흰돌로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역사적 의미를 지닌 돌집이요 교육의 돌집임을 자처하는 백석의 전이다.¹⁸⁾

영락교회는 서울에 있는 두 고아원, 두 모자원(전쟁 미망인을 위한)과 33명을 수용하는 양로원을 운영하고, 500명 규모의 무료 급식소, 500명 규모의 고등학교를 운영하였다.¹⁹⁾ 부산 피난 시절

15) Ibid., p. 189.

16)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115.

17) Ibid., p. 117.

18) 한경직 목사 성역 50년, pp. 56 - 7; 영락교회 35년사, pp. 129 - 141.

에 이 교회는 상이 군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하였으며, 매 월요일마다 일단(一團)의 여전도회 회원들을 보내 군 병원의 침대를 정리하고, 회복되는 군인들의 옷을 세탁해 주었다.²⁰⁾ 영락교회는 국내 전도, 노방 전도, 개인 전도를 활발히 하였으며, 또 이 교회는 서울 외곽과 인근의 도(道)들에서 시작하는 40여개의 개척교회를 지원하였다. 이 교회는 전후 최초의 외국 선교사인 최찬영(John Choi) 목사 부부를 태국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²¹⁾

이러한 선교의 열정을 「영락교회 35년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 28:19)고 하였으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지 못할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이 지상의 명령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영락교회는 인천제일교회를 개척 자립시킨 것을 비롯하여 150여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1980년 12월 31일 현재에도 개척하여 계속 후원하는 교회가 20개처로서 이 중 남선교회 담당이 7개처, 여전도회 담당이 10개처, 남녀 전도회 공동담당이 3개처이다.

이상의 개척교회 이외에 기관선교로는 방송전도(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와 경찰대학의 경찰전도, 총회 전도부의 산업선교 후원과 서울시내 6개 종합병원에 병원선교 후원 그리고 맹인선교, 윤락여성전도, 어린이 대공원 전도, 서울구치소, 외항선교 등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영락교회 전도 정책에서 개척교회 설립과 함께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군선교라고 하겠다. 1980년 12월 31일 현재 군선교는 논산 제2 훈련소의 장정의 집 운영과 총회 군목부 지원사업으로 본 교단 군목 18명에게 매월 보조하는 것이다. 현재 육군 군목 15명, 해군 군목 1명, 공군 군목 2명이 곧 그들이다.

끝으로 해외 선교사업은 최초로 1955년 4월 24일 최찬영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한 이래 1980년 12월 31일 현재 목사선교사 2명과 평신도 선교사 3명을 파송하여 선교에 임하고 있다.²²⁾

서울 외곽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1954년 4월 9 ~ 10일의 선교부 실행위원회는 경기도 내의 134개 교회가 각각 미화 1,000불 미만의 지원을 받아 교회 건물을 복구하도록 미화 53,144불 61전을 지불하도록 결의하였다. 죽원리(Chuk Won Ni)교회의 새 건물 건축비는

19) Ibid., pp. 197 - 8

20) Ibid., p. 133.

21)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117.

22) 영락교회 35년사, pp. 321 - 2.

제 1 미 해병여단이 담당하였다. 1954년 부활절 두 주 전에 해병여단은 이 교회의 헌당식을 돕도록 한경직박사와 E. Otto DeCamp목사를 모셔가도록 헬리콥터를 서울로 보냈다. DeCamp목사가 100여명의 미 해병들과 200여명의 한국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였으며 한경직목사가 이를 통역하였다.²³⁾

C. 연합사업과 협력

1. 한국 기독교 협의회(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1950년 6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전, 한국 기독교 협의회는 “구국 전도운동”(Save the Country Evangelistic Campaign)을 시작하였다. 3월 1일 협의회와 긴밀히 사역하는 Harold Voelkel목사와 한경직박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의 첫 그룹이 남한 지리산 지역에서 두 주에 걸친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왔고, 두 번째 그룹이 첫번째의 뒤를 이어 떠났다.²⁴⁾ 이 사건을 「영락교회 35년사」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948년 10월 19일 밤 9시에 일어난 소위 여수 반란사건(麗水 反亂事件)은 참으로 뜻하지 않았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소실된 가옥만도 3천이 넘는다고 하였다. 특기할 것은 손양원(孫良源)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의 처참한 순교 사실이다. 못사람의 마음을 찢는 듯 아프게 하였다. 두 젊은이의 순교한 순교의 모습을 우러러보면서도, 잔인무도한 공산당에 대한 분노와 절치의 한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 지역이 완전히 평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해방 후 수년간 사회의 제반 양상을 볼 때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꼈다. 국내사정은 점점 혼미해 갔다. 북한 공산당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다. 간첩사건도 빈번했다. 여수 반란사건 같은 것은 참으로 몹서리나는 뼈아픈 일이었다. 사회는 이모저모로 부패의 양상이 심각해 갔다. 특히 청년들의 퇴폐적인 흐름은 모골이 송연할 정도였다.

교회는 이 양상을 보고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다. 수차의 협의 끝에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거교회적으로 ‘기독교 구국운동’(基督教 救國運動)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1950년을 ‘구국전도의 해’로 정하였다.

4월 5일부터 4일간 시내 각 교회가 합동하여 ‘이복신도대회’를 본 교회에서 열고 속히 나라가 통일되기를 기원하고, 매일 오후에는 총동원하여 가두로 나가서 대중전도, 시위, 개인전도를 하였다. 그때에 모든 교회가 보여준 협동정신과 동지애는 참으로 영구불멸의 것이었다.

23)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120.

24) Ibid., p. 244.

1949년 말이었다. 남원읍 서북교회에서 시무하는 김봉용전도사가 상경하여 각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지리산(智異山) 전투지구에 전도대를 조직하여 특별전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공포 중에 떨고 있는 거주민들을 선무(宣撫)하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하였다. 수차의 협의 끝에 43명의 목사를 선발하여 2회에 나누어 지리산 지역 13개 군민들에게 특별전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1차는 1950년 1월에, 제2차는 동년 2월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경직목사와 강신명목사는 제1차시에 참가하였다. 한경직목사는 남원군 일대에, 강신명목사는 함양·산청·서청군 일대를 돌보기로 하였다. 약 1주일 동안 각각 맡은 지역을 순회하였다. 한경직목사가 지리산 지역을 출발할 때에 한 편의 구국의 노래를 만들어 전도대 본부에 보냈다. 이 노래말에 강신명 목사가 곡을 붙였다. 노래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강산에 나라시사
자유의 종 크게 울려
새 나라가 되었도다
일어나 일어나
십자가의 정병들아
진리의 띠 굳게 매고
성신의 검 높이 들어
악마 화전 소멸하자.

아침 저녁 지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몸바치고 재물드려
주의 나라 이룩하자
만세반석 굳은 터에
이 나라를 굳게 세워
영과 육이 구원언고
천추만세 복 받으라.

이렇게 전개된 구국운동은 위험을 무릅쓴 전도 행각이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불쌍한 농민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복음의 말씀은 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이 지역 대부분에 교회가 없었다. 문자 그대로 미개척지구였다. 이때에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는 자랐다. 지금은 타지역에 비해 교회가 월등하다. 거의 방방곡곡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때에 본교회 제1회 장로

인 조상현(趙尙賢) 장로(조의숙 권사의 부친)가 이 지역에 전도사로 파송되어 교회를 개척하였다. 복음 전파는 물론 지역민을 선무하는 수고를 하였다.²⁵⁾

「미국 장로교의 선교 역사」는 계속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세번째 그룹은 38선으로, 네번째 그룹은 대구로 떠났다. 3월 27일 저들은 중국에서 전도집회를 마친 세계 선명회 총재 Bob Pierce박사, 당시의 1마일 경주 세계 챔피언이었던 Gil Dodds와 Robert Finley로 이루어진 미국으로부터 오는 전도팀을 40,000여명에 이르는 청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들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구, 부산, 서울, 광주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의 전도집회는 남대문 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군중이 교회에 차고 넘쳐, 12,000명이 참석한 저녁 집회 때엔 강대상을 교회 밖으로 들어 내야만 했었다.²⁶⁾

1950년 9월 공산군들이 서울에서 철수할 때, 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 교수였으며 한국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 총무 남궁 혁박사가 남북 당하였는데 실종된 듯 하다. 중공군들이 서울로 진군해 오므로 협의회의 다른 임원들이 1951년 1월 부산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에 합류하였다.²⁷⁾ 한경직박사가 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회(the Emergency Committee) 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6월 28일 협의회의 후원으로 목사를 위한 퇴수회(Pastor's Retreat)²⁸⁾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에 60명에서 70명에 이르는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성결교 목사들이 참석하였다.²⁹⁾

이 대목에서 「미국 장로교의 한국 선교 역사」는 「영락교회 35년사」와 그 수처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영락교회 35년사」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수백 명의 교역자가 부산에 모여들었다. 노진현목사가 시무하는 중앙교회에 모여서 예배보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이 모임에 한경직목사도 참석하였다. 이때에 피엘스목사를 만났다. 피엘스목사는 6·25전에 서울서 집회를 가진 일이 있다. 그때에 한경직목사가 통역을 맡아 준 일이 인연이 되어 한경직목사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무언가 한국을 돕고 싶는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해 왔다. 한경직목사는 눈을 들어 상황

25) 영락교회 35년사, pp. 94 - 7; 한경직목사 성역 50년, pp. 44 - 47.

26) Rhodes and Campbell, op. cit., pp. 244 - 5.

27) 비교 영락교회 35년사, pp. 114 - 5; 한경직목사 성역 50년, pp. 48 - 50.

28) Ibid., p.52 는 '교역자 중심의 특별 집회'라고 쓰고 있다.

29)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245.

을 살렸다. 오늘날 국난을 믿음과 슬기로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역자들을 먼저 생각하였다. 유리 방황하는 수백 명의 교역자가 우선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하겠으니 교역자 중심의 특별 부흥회를 열자고 하였다. 합의를 본 후 장소를 송도로 정하고 부흥회를 열었다. 약 4백 명의 목사가 참석하였다. 모든 비용은 피얼스박사가 담당하였다.

피얼스목사는 6·25사변 나기 1개월 전에 한국에 와서, 현 대한화제가 서 있는 자리 공터에서 큰 집회를 가진 바 있다. 6·25사변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귀국하였다. 그후 다시 한국에 나오려고 애썼으나 군인이 아니기에 별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 한가지 방법이 강구되었는데 즉 자신이 경영하는 잡지사의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한국에 와보니 그의 안광으로는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살상된 인명, 파괴된 시설, 유리 방황하는 난민, 불쌍한 고아들, 의지할 데 없는 미망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피얼스목사는 마음에 큰 상처와 자극을 받았다. 한경직목사는 그 당시의 피얼스를 'the man of broken heart'라고 표현하였다.

“한경직목사!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소? 힘 있는 대로 한국을 돕고 싶은데요.” 피얼스박사는 이렇게 의논해 왔다. 위에 이미 언급한 대로 유리 방황하는 피난 목사 4백 명을 모아 숙식을 제공하면서 부산 송도에서 수양회를 가진 것을 위시해 다량의 군용 천막을 얻어다가 피난민의 거처문제 해결에도 큰 몫을 하였다.³⁰⁾

2. 대한성서공회

1950년 가을에 군목 Ivan Bennett 대령(후에 준장이 됨)이 MacArthur 원수에게 군함으로 성경 50,000권을 날라다 줄 것을 요청했을 때, MacArthur 원수는 “3,000,000권으로 하도록 하라”는 답신을 하였다. 다음 해(1951년)에 미국성서공회는 한국 군인들과 포로들을 위하여 휴대용 신약성서 150,000 권을 일본에서 인쇄하였다. 미국성서공회 총무 Frederick W. Cropp, Jr. 는 Presbyterian Life 라는 잡지 1951년 4월 14일자에, “한국에서 저들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글을 기고하였고, 그 자신과 한국의 한경직목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이 잡지에 실렸다. 그는 “1945년 이래로 성서공회는 배편으로 신약 250,000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쪽복음 125,000권, 산상설교 100,000권, 4복음서와 사도행전 50,000권을 한국으로 보냈다. 1947년에는,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성경 전권 250,000권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5년간 매해 200,000권의 신약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³¹⁾

3. 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

1952년, 숭실대학 동문회는 「숭실 재건 확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에 숭실대학을 재건하

30) 영락교회 35년사, pp. 116 - 117; 한경직목사 성역 50년, pp. 50 - 53.

31)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250.

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다.³²⁾ 저들은 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도움을 호소하였다. 1952년 가을 회의에서 위원회는 Edward Adams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Francis Kinsler(권세열목사)는 서울의 영락장로교회 목사 한경직 박사에게 대학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 문교부의 설립 규정에 부합하다면 대학을 위하여 미국에 미화 50,000불을 예치하도록 해외 선교부에 요청서를 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³³⁾

1954년 10월호 *The Korean Survey*, 1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한다: “본래 평양에 소재했던 승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은 박하성씨가 기증한 땅 서울에서 재건되었다. 학생회는 1,700명 지원생 중에서 선발한 200명으로 구성되었다.³⁴⁾ 장로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설립된 대학의 개교 기념식은 서울에 있는 영락장로교회의 한경직목사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영락교회에서 있는 대학 개교 기념식에서는 서울 시장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의 축사가 있었다.³⁵⁾ 여기엔 1928 - 1936년 평양에서 승실대학 학장을 지냈던 고(故) George S. McCune의 아들이며 Colgate 대학교의 교수인 Shanon B. McCune 박사가 참석했다. 16년만에 교가가 불려졌다. 강의는 잠정적으로 영락교회의 건물에서 진행되었다.³⁶⁾

영어 이름 “Union Christian College”는 사용이 중단되고, 이때로부터 한국 이름 “승실대학”만이 사용되었다.³⁷⁾

1958년 봄에 총학생회의 수는 518명에 이른다. 교수진은 16명의 전임교수와 36명의 시간강사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기독교인이고, 19명은 교회의 제직이었다. Harold Voelkel, Francis Kinsler와 Arthur Kinsler 박사는 시간강사로 섬겼다. 재건된 대학의 첫 졸업생은 1958년 3월에 졸업한 120명이었다. 이것은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 신앙을 타협하느니 폐교를 단행했던 이래로 20년만의 첫 졸업식이었다. 승실대학의 수많은 졸업생들은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승실 재건 초대 학장인 유명한 영락교회의 목사 한경직박사, 2대 학장 김성락박사, 오랫동안 중국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았던 방지일목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록서기 안광국목사와 수많은 목사, 체신부 차관을 지낸 조용천준장, 걸출한 평신도들이 있다. 승실대학은 한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가장 유익한 기관으로 증명되었고, 한국교회 발전에 가장 강한

32) 승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승실대학교 100년사 [서울 승실편(서울:승실대학교 출판부, 1997)], p. 4.

33) Rhodes and Campbell, op. cit., pp. 277 - 8.

34) 승실대학교 100년사, p. 11.

35) Ibid., p. 12.

36)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278.

37) Ibid., p. 279.

요소가 되어왔다. 숭실대학의 재건은 계속하여 엄청나게 유용할 것이 틀림없다.³⁸⁾

D. 특별한 형태의 사역

1. 일반적인 구제사업

해외 선교부는 세계 참여주일에 한국을 위한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1951년 「나눔의 한 위대한 시간」(the One Great Hour of Sharing) 헌금에서 한국에 200,000불, 1952년에 304,454불, 1953년에 270,298불 89전이 허락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있는 제165회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나눔의 한 위대한 시간 자금」에서 한국을 위해 255,000불짜리 수표가 한경직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극적인 순간이었다. 1954년 6월에, 해외 선교부는 일반 편지 124호에서 교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정전 이후, 신학교들, 병원들, 학교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돕는 것은 선교부의 책임이 되었다. 1956년까지 최소한 2,500,000불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나눔의 한 위대한 시간과 특별한 세계 참여 헌금에서 첫 단계로 403,000불의 자금이 마련되어서 150개의 교회와 기관 건물들이 쓸 수 있도록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³⁹⁾

2. 고아원

서울에 있는 영락장로교회 교인의 거의 2/3가 부산으로 피난온 후, 저들은 저들의 목사 한경직 박사의 인도로 전쟁 미망인 22명과 82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다비다 모자원을 설립하였다. 한 박사는 한번의 미국 여행에서 이 모자원을 위하여 대부분 재미 한인들로부터 700불을 모금하였다. 그의 교회는 서울에 고아원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⁴⁰⁾

3. 시청각 매체

공산 침략군들이 38선 이북으로 후퇴한 후, 서울의 HLKA(국영방송)국이 재개되고, 국영 방송 입에도 때때로 기독교 메시지를 세계 선명회의 Bob Pierce, Billy Graham, Harold Voelkel, Harry J. Hill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경직박사가 통역하는 것이 방송되었다.⁴¹⁾

DeCamp의 다음 보고서는 크리스마스 아침 새벽 2시 15분에 썬여졌다: “HLKY(기독교방송)는 0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을 북한으로 내 보내고 있었다. 우리 구주

38) Ibid., p. 280. Cf. 숭실대학교 100년사, pp. 3 - 6.

39)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322.

40) Ibid., p. 329. Cf. 영락교회 35년사, pp. 198 - 205.

41) Rhodes and Campbell, op. cit., p. 348.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관한 즐거운 메시지가 담긴 노래와 이야기를 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는 열 다섯 시간 계속되는 크리스마스 방송 중이었다. 방금 전에 Stephen Vincent Benet의 “아기가 태어나심”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내 보냈다. 한경직박사가 북한에 있는 그의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며, 그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는 고난의 시간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고 곧 한국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열정적인 기도로 호소를 마무리하였다.⁴²⁾

주일 저녁 Billy Graham의 프로그램 [결단의 시간, Hour of Decision] 외에도 매 주일 아침 거의 세시간 가까이 영어 종교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영락교회의 한경직 박사 역시 매주 토요일 저녁 Billy Graham의 프로그램과 흡사한 「소망의 시간」(The Hour of Hope)이라는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효율적인 사역을 확대하는 영락교회의 노력의 일환이었다.⁴³⁾

「소망의 시간」에 관하여 「영락교회 35년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요 전도활동(傳道活動)으로서 새로 시작한 것이 방송전도(放送傳道)이다. 1959년 1월 3일부터 기독교방송(HLKY)을 통하여 ‘소망의 시간’이란 순서를 한경직목사와 본 교회 성가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토요일 저녁 9시 20분부터 30분간 그리고 주일 낮 12시부터 30분간 매주 2회 전국에 방송되었다. 한경직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이 청취자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게 되어, 기독교를 알아 보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지자 1963년부터 한경직목사가 지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란 소책자를 재판하여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내주었다. 이 문서전도는 예상외의 많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1965년에는 5천부를 찍었으나 타교회에서까지 요청이 쇄도하여 2만 6천부를 더 찍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살길이 어딘가?”라는 전도지를 매년 1만부 이상 인쇄하여 노방전도와 개인전도용으로 배포했는데, 이도 1965년 창립 20주년 기념 전도의 해에는 4만부 이상으로 늘려 인쇄하기에 이르렀다.

1959년에 방송전도를 시작한 교회는 그 후 기독교방송의 ‘영락의 시간’ 극동방송의 ‘은혜의 아침’ 중앙방송의 ‘우리의 소망’ 등의 프로그램이 국내 또는 대북(對北)방송으로 나가게 되었다.⁴⁴⁾

42) Ibid., p. 351.

43) Ibid., p. 352.

44) 영락교회 35년사, pp. 194 - 195.

Ⅲ. 맺음말

우리는 「미국 장로교의 한국 선교 역사」에 나타난 한경직 목사의 사역 면면을 살펴보고, 그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는 북한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였다. 그는 첫 대북 방송의 통역자였고, 평양 수복 후에 첫 설교자, 성서 보급자였음과 또 크리스마스 방송중 북한 교인들에게 들려준 호소와 기도가 이를 잘 말해 준다.

둘째로, 그는 위대한 목회자였다. 특히 그는 말씀의 선포자였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위로의 설교인 동시에 격려의 말씀이었다. 구령의 설교인 동시에 애국의 권고였다. 그는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엔, 통역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통역은 설교자 이상의 감동을 주곤 하였다. 그의 사역은 말씀에 근거하였기에, 그는 성서 보급에도 앞장섰다.

셋째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의 설립자이다. 그는 완벽한 목회신학으로 영락교회를 이룩하여 한국 기독교를 세계에 빛냈다. 피난 시절엔 피난지에 대구영락교회, 부산영락교회, 제주영락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다.

넷째로, 그는 대표적인 기독교 자선 사업가이다. 그는 Bob Pierce를 “the man of broken heart”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한경직 목사에게 어찌면 더 적절한 표현이다. 그는 유리 방황하는 난민을 위한 무료 급식소, 불쌍한 고아들, 의지할 데 없는 전쟁 미망인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고아원, 모자원, 경로원을 세우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다.

다섯번째로, 그는 뛰어난 기독교 교육자이다. 그는 그의 교회 구내에 성경 구락부(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영락 여자 신학교를 위시하여, 대광학원, 보성학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 숭실대학교, 서울 여자 대학교 등 숱한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기독교 교육에 이바지 하였다.

여섯번째로, 그는 전도와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다. 그는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펼친 「구국 전도 운동」이라든가, 200여개의 개척교회 선교라든가, 최초로 외국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속적으로 외국 선교를 돕는 일, 비기독교인이나 미개척 지구와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방송 선교등이 그의 선교 열정을 잘 설명한다.

일곱번째로, 그는 교회 연합사업과 교회의 복구, 목사 재교육의 선봉장이었다. 그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 대한 성서공회와 같은 연합사업에 앞장 서 협력하였다. 또 그의 빼 놓을 수 없는 사역은 그의 특유한 설득력으로 미국 장로교 총회, Bob Pierce, 그리고 개인들에게 호소하여 천문 학적인 원조를 받아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교회들을 복구하고, 구호기관을 세우고, 국난을

믿음과 슬기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리 방황하는 수백 명의 교역자를 모아 교역자 중심의 특별 부흥회를 열어 한국 교계와 교인들을 부흥시킨 일은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경직목사는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완벽한 목회자로서 모든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의 귀감이 되는, 마땅히 첫 손가락으로 꼽을 우리들의 모범(model과 mentor)이시다.

참 고 문 헌

- Lehr, Donald. 1992 Templeton Prize for Progress in Religion.
- Rhodes, Harry A. and Archibal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ume II 1935 - 1959(Seoul: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4).
-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 ②서울 숭실편(서울: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 영락교회 35년사 편찬위원회, 영락교회 35년사(서울: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983)
- 韓景職. 韓景職牧師 說敎 全集 3(서울:大韓基督教書會, 1971).
- 한경직목사 기념사업출판위원회, 한경직목사 성역 50년(서울:영락교회, 1986)

Abstract

Reverend KyungChik Han as shown in the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Han, Joong-Sik

There are sporadic descriptions contained in the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but they are consistent with historical materials of YoungNak Church and provide readers with an overall picture of Reverend Han. According to the material, Reverend Han was the following:

First, he had an immense interest in mission related to North Korea.

Second, he was a great minister.

Third, he was the founder of the largest presbyterian church in the world.

Fourth, he is a representative Christian philanthropist.

Fifth, he was a great Christian educator.

Sixth, he had a special fervor for evangelism and missionary work.

Seventh, he was a leader of united church projects,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and re-education of ministers.

As such, Reverend Han was a perfect minister who had all the necessary qualities. He was a model and mentor to all ministers and Christians.